

## 가능성 필름 개발 주력, 업계 차별 모색 노사문제 해결로 고락(苦樂) 함께 할 터

임정섭 / 삼민화학공업(주) 대표이사

1967년 말, 합성수지 원료를 취급하는 일을 하고 있던 임동준 현 삼민화학공업(주) 부회장이 계기를 마련해 창립된 삼민화학공업사는 초장기, 제약용 은박포장제품을 계약사에 납품하는 것을 주로하여 발전하게 된 업체이다.

이후 삼민화학공업(주)은 국내 인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삼본 그라비아를 창업 3년만에 인수, 그라비아 인쇄를 시작하면서 제과, 식품쪽의 포장재 생산을 시작하게 된다.

지난 36회 무역의 날에는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면서 연포장을 비롯한 CPP Film, 알루미늄 증착, 가공 나일론 필름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삼민화학공업(주)의 임정섭 신임 대표이사를 만나 취임소감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부족한 제가 대표이사라는 직책을 맡게 돼서 무한한 책임의식과 함께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회장, 부회장님의 그간 경영방침을 모태로 삼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을 다할 것입니다.”

임정섭 대표이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지금의 '선경'과 현대종합상사에서 관리직 업무를 하게 된다. 그러던 그는 17년전인 1986년, 지금의 삼민화학공업(주)에 입사하면서 포장과 인연을 맺게 된다.

포장업을 시작할 당시 특별한 계기가 없던 이 주변의 환경에 쫓다보니 시작하게 됐다는 임 사장은 한해 한해를 거듭할수록 포장이 가진 특별함에 매료되어 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물건을 싸는 것, 상품의 곁에 표시된 컬러풀한 디자인이 포장의 전부라고 생각했지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장이란 것이 구매 촉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삼민화학공업(주)이 생산하고 있는 필름 개발에 애착을 갖게 됐습니다.”

1986년 현장근무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기획 파트를 비롯한 영업을 주로 맡아왔다는 그는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 고객만족 통한 수출 확대 주력

“영업을 해오면서 대형업체들이 갑작스런 거래중단을 요구했을 때가 가장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내 거래처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죠. 어려웠던 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노사가 단결해온 것이 삼민이 다시 재도약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섭 사장은 ‘무한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포장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밝히면서 유저가 요구하는 적정 포장의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 기능성 필름의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지난 92년 동남아 수출을 시작으로 일본, 미국 등지로 그 수출 영역을 확대해 간 삼민화학공업(주). 임정섭 사장은 각 나라마다의 차별화된 구매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과 기존에 확립한 신뢰를 통해 수출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임 사장은 현재 그라비어 업계가 기술적인 자체 노하우를 자랑할만한 차별성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그라비어 인쇄업계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점을 감안했을 때 가격, 덤핑경쟁에서 나타나는 출혈경쟁을 자제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자사만의 독특한 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임정섭 사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플라스틱 관련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환경문제 해결의 문제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없이 당연하게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합당한 규제가 아닌 생산업체들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법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럽게 반문했다.

임정섭 사장은 고객이 요구하는 포장에 부합하고 있는 미주 지역 포장의 장점을 살려 기능성 필름 개발을 통한 경쟁 아이템 개발로 삼민화학공업(주)을 연포장 업계에서 독보적으로 만들수 있도록 업계 차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그는 납품이 보장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고객에게 심어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삼민화학공업(주)이 지금까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직원들의 무한한 노력이었다고 강조하는 임정섭 사장. 그는 앞으로도 노사가 고락을 함께 하며 마음을 합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계미년 새해 신임 대표이사 취임으로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삼민화학공업(주)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